

산정호수 주변 간판 탈바꿈

포천시 6억5천만원 들여 200여개 간판 整備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시의 대표 관광지인 산정호수 입구~산정호수 관광지 구간 왕복 8km구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국민관광지의 이미지를 저해하여 왔던 다분히 원색적이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중압감을 느끼게 했던 거대 광고물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소재의 간판(방부목, 채널, LED등)으로 제작 설치했다.

시는 관광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 서울, 안성, 파주 등의 우수 간판정비 지자체를 5회에 걸쳐 벤치마킹 하는 등 인포메이션 사인으로서 Land Mark적 요소 부각과 지역 특성의 이미지를 최대한 표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총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로형 107개, 돌출간판 59개를 정비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한 잔여 사업비로 2차 사업 상징 조형물 22개, 안내사인 11개, 야생동물 출현 안내간판14개, 가로형 간판34개, 지주형간판 61개를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월경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간판문화 개선에 이은 광고문화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다시 찾고 싶은 간판이 아름다운 관광지 산정호수로서의 입지강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정호수 간판정비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추진방향 설정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시의 대표관광지인 산정호수 입구~산정호수 관광지 구간 왕복 8km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국민관광지의 이미지를 저해하여 왔던 다분히 원색적이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중압감을 느끼게 했던 거대 광고물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소재의 간판으로 제작 설치했다.

부위원장 박승찬 위원 만장일치 추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2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2월14일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차 정기회의를 갖고 부위원장에 박승찬 위원을 선출하고 신임위원으로 김진우 위원과 신관수 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이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연휴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포천신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꿈과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62차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오늘 신임 위원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쓴소리, 단소리 아끼지 말

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는 독자배가운동을 실시하여 지역내 힘있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오는 4월중에 실시하게 될 베트남 연수의 건에 보다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문 구독 활성화 방안 및 신문광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위원장

박승찬 위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위원장을 도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임 박승찬 부위원장은 "미려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채워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음 참석한 김진우 위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하도록 보필하겠으며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관수 위원은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돼서 반갑다며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월14일 오후7시 개최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2차 정기회의에서 박승찬 부위원장이 추대소감을 밝히고 있다.



운영위원장과 신임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신임 신관수 위원, 윤이용 운영위원장, 김진우 위원)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⑤ 논병아리

물고기의 저승사자

물고기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논병아리는 사냥의 명수이자 눈치가 100년도 넘는 악동입니다. 포천천에서도 그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이 워낙 민감하여 인기척만 느끼면 '퐁' 소리와 함께 어느새 물속으로 잠수하여 전혀 엉뚱한 곳으로 '쑈' 나오기 때문에 탐조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녀석입니다.

지난 2월 2일 포천생태연구회에서 포천천의 조류실태파악을 한바 있었는데, 일가쪽으로 추정되는 논병아리 4마리가 하송우리 수중보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일행이 신기한 마음에 하천 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로 내려서자 바로 물속으로 잠수하여 하류로 내려 가버리더군요. 그 순간은 정말 알뜰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정감이 가는 귀염둥이 논병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논병아리는 부화되자마자 바로 어미를 따라 다니며 물에서 수영과 사냥을 배우게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어미의 등에 올라 타고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등에 업어서 키우는 우리의 부모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논병아리는 물 속 깊이 잠수를 해서 먹잇감(물고기, 소라, 달팽이, 새우 등)을 사냥하는 잠수성 조류이며 몸길이 24cm 정도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래도 병아리보다는 훨씬 큼니다.

재미있는 것은 논병아리가 어른이 되어도 역시 병아리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논병아리의 머리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텐데, 두배 가까이 더 큰 물닭이 있다 보니 그만 병아리로 '격하'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논병아리는 땅에서는 잘 걸지 못하지만 잠수실력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물갈퀴가 잘 발달되어있어 한번 잠수하면 100여 미터 정도까지 가서 물고기 등을 먹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물에 잠수하는 경우는 먹이를 사냥하거나 위험을 느낄 때 물속으로 침범 들어가지요.

새들의 눈에는 순막(瞬膜)이 있어 물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으며 물 밖의 동정을 살펴다가 위험이 없다면 그때 물위로 올라와 유유히 수영을 하곤 합니다.



2007. 02. 02. 포천천에서 촬영

논병아리의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워낙 식탐이 많은 편이라 물에 들어가 사냥에 성공하여 물고기를 물고 나왔을 때는 무리의 다른 녀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다다다...하며 물위를 뛰다시피 멀리 달려가서 먹이를 삼키게 되는데, 어떤 때는 물고기를 물고 달려가다 그만 먹이를 떨어뜨리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천천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쉬고 있습니다. 천수만이나 금강하구연 같은 대규모 철

새도래지와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월동을 마치고 이동을 하는 도중 잠시 쉬었다가 가는 중간 경유지로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중간 과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모두가 철새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액 2만원대 부터...



꽃샘고려홍삼꽃세트
홍삼골 1000g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골 2200g



꽃샘토종고기구3호
토종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1호
토종골 2400g



꽃샘기획세트1호
대추꿀차 1200g / 잡화골 1200g



꽃샘기획세트2호
영지꿀차 1200g / 잡화골 1200g



GS기획세트
잡화골 1200g / 솔잎꿀차 1200g



꽃샘프리미엄꽃세트1호
아카시아 1200g / 잡화골 1200g



꽃샘꿀차세트
영지꿀차 1200g / 대추꿀차 1200g



꽃샘5호
꿀대추차, 꿀유자차, 꿀솔잎차 × 1000g



꽃샘8호
영지꿀차 1200g / 홍삼100 70ml×7포, 대추꿀차 1200g



꽃샘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대추꿀차×600g